

보도자료

2010년 11월 3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 디지털방송지원과 나현준 과장(☎750-1480)
디지털방송지원과 김영태 주무관(☎750-1485) ytkim@kcc.go.kr

단양군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전환

- 단양군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는 울진, 강진에 이어 11월 3일 오후 2시를 기해 단양군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2012년 전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9월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등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컨버터(디지털 → 아날로그 변환기) 무상제공, 보급형 디지털 TV 구매 보조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여 시범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방통위와 방송사 그리고 지자체의 공동노력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 중계소보다 전파 환경이 우수한 디지털 방송 중계소를 새로이 구축하여 산악지형으로 인해 발생된 난시청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1개월(11월 3일~12월 2일) 동안 KBS 아날로그 제1TV를 통해 TV 화면 80% 크기의 안내자막을 방송하여 디지털 전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대도 빠짐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버터와 기술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